

아오시마 신사: 아마노히라카

히라카는 질그릇의 일종으로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(300 BCE – 300 CE)부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720 년에 편찬된 일본 역사서인 『일본서기(日本書紀)』에서는 신화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언급한 말 중에 히라카가 등장합니다. 진무 천황은 히라카를 점술 도구라고 칭하며 히라카를 사용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을 장려했습니다. 히라카는 나라 시대(710-794)의 궁중에서 점술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점토 그릇을 신들에게 음식을 바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모토미야에서는 고대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그릇이 대량으로 발굴되기도 하였는데, 참배객은 지역 점토로 만든 히라카를 신사 옆 성역의 울타리 너머로 던져 운세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. 히라카를 던질 때는 던질 방향으로 두 번 목례를 한 다음 빌고 싶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던져 봅시다. 히라카가 성역에 제대로 착지했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, 히라카가 착지한 순간에 깨진다면 행운이 찾아오고 악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. 이용하실 때는 히라카 1 장당 200 엔을 신사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